**컴퓨터에 대한 맹신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112896 김효준**

옛날부터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항상 문제점들을 수반하는 양면성을 보여왔다.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면서 생산과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의 고갈, 산업 쓰레기, 화약 약품 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은 자연 생태계,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생존에 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컴퓨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3차 산업혁명을 지나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삶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컴퓨터, 로봇 등에 의해 대체 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은 실수가 많은 사람들보다 항상 정확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컴퓨터와 로봇 등을 더욱 신뢰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일을 처리 한다고 여겨지는 컴퓨터가 오류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해킹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조작이 되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도출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은 발전을 거듭하며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어 인간 생활을 돕고 있다. IBM 왓슨은 의료,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실용화 되며 AI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환자에 대한 진단이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와 높은 정확도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의사의 판단이 다를 때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판단을 더욱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컴퓨터에 어떠한 오류가 발생했거나, 혹은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해 컴퓨터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만들었다면 이는 컴퓨터 맹신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구글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자율 주행 시스템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기술이다. 아직은 연구중인 단계이지만 성공적으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조정하는 등 본격적인 실용화를 준비 중에 있다. 자동차 주행 역시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율 주행 시스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용화에 앞서 자율 주행 시스템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트롤리 딜레마’ 이다. 윤리적 상황 등이 결합된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율 주행 시스템이 사람들과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에 대한 맹신을 가지고 있을 때, 어쩌면 사람이 직접 판단을 했을 때 맞이 할 수도 있을 더 나은 상황을 허무하게 날려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변수가 많은 금융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은 몇 차례 사람을 앞서며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의 도움으로 자산을 관리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람들에게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도 있다. 아직은 상상 속의 이야기, 영화 속의 이야기 같다고 생각 될지 몰라도, 이러한 맹신은 한 순간에 사람들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 19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거 위원단의 수작업과 동시에 투표지 분류기 라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투표지 분류기는 네트워크가 차단되어 있으며 승인된 사람의 보안키가 없으면 작동조차 시킬 수가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 투표 시스템이 정확하고 공정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선거 위원단 역시 컴퓨터를 믿고, 정확한 수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시스템을 만든 이상 어디에도 완벽한 보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시스템이든 누군가는 틈을 찾아 보안을 우회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도 실험을 통해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여졌고 컴퓨터를 맹신하고 있는 지금의 투표 시스템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컴퓨터라는 것은 좁은 지역이 아니라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은 오류 혹은 약간의 조작만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컴퓨터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편리해 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컴퓨터에 대한 맹신은 언제 생길지 모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예방책을 없애 버리는 것과 같다. 컴퓨터에 대한 맹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먼저 어디에도 완벽한 시스템은 없으며 언제나 오류가 발생하고 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컴퓨터보다 사람이 우선시 될 것, 간단히 순서만 바꿔 컴퓨터의 판단만을 맹신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사람의 판단을 우선시 하고 컴퓨터는 사람의 판단을 도와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컴퓨터,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점을 걱정해 완전히 배척하기 보다는 사람과 컴퓨터 기술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 졌을 때 비로소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이 완성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